

2023

새해 이렇게

김산 무안군수

“신성장 동력 MRO 항공 특화 산업단지 연내 준공”

〈항공기 정비〉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3월 중 도자산업 특구 지정 추진 청년농업 전문학교 운영·스마트 영농단 등 청년 창업농 육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면서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는 ‘더 큰 무안’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특화된 미래 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에 나갔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 한해 ‘더 큰 무안’ 건설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7대 분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가장 먼저 신성장 미래먹거리와 특화 산업 발굴육성으로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군정을 펼쳐 나간다. 김 군수는 “향후 무안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 동력의 핵심축이 될 무안 MRO(항공기 정비) 항공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연내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항공기 부품·물류 등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

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산업단지인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연계한 푸드 테크(Food Tech)산업으로 연계 시킨다는 복안이다.

무안 도자산업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는 3월 중 ‘무안 복합기능 도자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세라믹산업 제품고도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지역 내 2개 대학과 연계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운영 활성화로 스마트팜 산업 및 제조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배출에도 힘쓴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상생 균형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다.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은 지역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지역과의 문화적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다목적 체육관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도시지역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전남의 수도다운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간다.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상반기 중 준공하고, 오룡복합문화센터와 남악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또 수영장과 웨이크보드 등 2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악신도시 종합 스포츠센터는 4월 중 착공하고, 김대중 광장 생태 어린이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남악 수변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김 군수는 무안만의 매력을 더 한 관광 상품 개발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변화된 지역SOC 여건과 무안군 역점 사업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무안군 관광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그는 “무안군 관광산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 기반 만들기도 빼놓을 수 없다. 무안군 과학영농 기반시설이 될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또 청년농업 전문학교 운영, 스마트 영농단 육성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농 육성에도 힘쓴다. 특히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과 쌀 가공 산업 활성화·신 소득 과수·원예특화 작목 육성과 스마트 복합기능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그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편한 생활환경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맞춤형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하겠다”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통합사례 관리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꼼꼼하고 차별화된 교육지원으로 교육받기 좋은 도시 만들기, 청렴한 공직사회 화합하고 소통하는 군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각계각층 인재육성 열망...신안군장학재단 매년 모금액 늘어

향우회·농어업인·팔순 축하금
기업·기관까지 기부 행렬 동참

관광산업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뜨는 섬’ 신안에 각계각층의 희망의 장학금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역 유관기관들은 물론 각 지역 향우회, 기업, 농어업인, 80대 노부부, 장애인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신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달에 이어 팔금 지역 농민 이상배·이인숙 부부가 1000만원, 중도면 박형기·최연아 부부가 3000만원을 기탁했다. 또 팔금면에서 수산업업을 하는 박종업·이종심 부부가 1000만원, 비금면 형제수산 주정호 대표가 2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비금농협농가주부모임(회장 양훈숙)이 200만원, 서흥보조금회 목포지점이 1000만원, 마이비(대표이사 손민수) 임직원 1000만원을 내는 등 기부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재경·재광·재부·재목 신안군향우회에서도 날로 성장해가는 고향사랑에 대한 뜻을 모아 인재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기부금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의면 장명흠·제갈향덕 부부가 팔순 축하금을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1000만원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여기에 농사일을 하다 한 쪽 눈이 실명된 박상복씨가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기



신안군 중도면 박형기·최연아 부부가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한 뒤 박우량(맨 왼쪽) 신안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위해 자녀와 함께 모은 1000만원을 고향을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쓰고자 장학재단에 기부한 사연도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기부자들은 “신안이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은 유능한 지도력으로 군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고향 성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육성해나가야 한다”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인재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군수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에서도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향한 열정의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을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 사용하고 인재발굴과 육성으로 기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신안군장학재단은 지난 한해 110곳으로부터 6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받아 2008년 장학재단 설립 이래 4년 연속 최고의 기부금을 기록하며 지역인재육성에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핑퐁민원’ 없앤다...업무조정 TF 운영

각 부서 6급 1명씩 총 25명 구성

영암군이 ‘핑퐁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업무조정TF팀을 구성·운영한다.

업무조정TF팀은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되는 복합민원이나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업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배심원 제도로 운영되는 업무조정TF팀은 의회 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업무가 발생하면 주

관부서인 혁신전략팀이 배심원단 가운데 분쟁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7명의 배심원을 추천해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이해 관계 부서는 이를 즉각 수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영암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서 업무조정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관 부서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군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업무조정TF팀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혁신정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수소자동차 구매 3500만원 지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승용차 75대의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3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 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가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선정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도시민 유치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영광군은 오는 20일까지 ‘2023년 영광군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란 영광군민 중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농촌 생활 소개, 살기 좋은 마을 발굴, 성공사례 등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리포터(reporter)를 말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귀농·귀촌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접수는 방문(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자메일(dr@gxg9140@korea.kr)로 1월 20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역 및 신청서는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061-350-5574)로 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안전전담자 육성 지원

81개사 대상 연간 인건비 32억

현대삼호중공업이 원청·하청 상생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전담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TF팀을 꾸려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는 사내 생산 협력사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협력사 내 과중된 업무를 분산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81개 사내 생산 협력회사 전체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연 최대 32억 원의 인

건비를 3년간 지원한다. 직무능력평가와 안전 유공자 등 우수자를 선정해 연 1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술교육원 연계 환급과정 개설 ▲관계기관 및 전문 교육기관 대상 안전보건 교육 전문 컨설팅 ▲소통 및 전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 안전전담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사내 협력사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무사고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주춧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오는 31일까지 기술교육원 홈페이지(http://tei.hshi.co.kr)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추위야 물렸거라”...해남군 야외족욕장 인기



해남군이 해남읍 서림공원에 조성한 야외족욕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서림공원에 군민 힐링 족욕장을 조성했다. 족욕장은 평균 수온 40도의 청결한 물이 상시 순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었으며, 관리자를 두어 상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